

평화 인터뷰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미술로 읽는 성경

요셉의 삶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예표

서울YWCA 긴급 성명서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 촉구

Y 이슈

## 이사·위원 연구모임



# 서울YWCA

2026

0506

Vol.642



‘믿을 만한’ 혹은 ‘괜찮은’ 남성들의 글을 찾아 읽는 일이 이제는 꽤 익숙해졌다. 반페미니즘이 다양한 양상으로 발현되는 이 시기에 함께 맞설 수 있는 동지가 한 줌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적잖은 힘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남성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식이 꾸준히 들려온다. 그때마다 나는 쓸쓸한 감정에 사로잡히고 냉소에 빠져들기 일쑤였는데, 달리 어찌할 방도를 몰랐기 때문이다. 페미니즘을 받아들인 뒤로 여성 인권을 곳곳이 외쳐온 그들에게 상반된 일상이 가려져 있었다는 사실에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기사가 보도된 후 페미니스트 남성들을 엮어 비판 섞인 분노를 쏟아냈다. “역시 남자는 안 된다니까.”



## 실패하는 남성들

비난을 받거나, 회색분자 취급을 받더라도 남성 페미니스트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유는 커뮤니티가 대표하지 못하는 남성들에게 ‘페미니스트로 살아도 괜찮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다. 페미니스트로 산다고 삶에 큰 일이 일어나지도, 친구들과 멀어지지도 않는다. 남성으로서의 희생을 강요받지도 않는다. 대신 지금보다 돌봄에 충실하고, 평등을 추구하고, 가부장제에서 벗어난 체계를 꿈꾸며 사는 것이다. — 박정훈 『차별을 훔치는 남자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실패를 페미니스트 남성들의 실패로 환원하는 것은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다. 이럴 때일수록 실망과 냉소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남성성이라는 구조가 얼마나 끈질기게 한 개인을 형성하는지를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 남성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 욕망을 조직하는 방식, 그리고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 전반에 깃들어 있다. 페미니즘에 관한 책을 고작 몇 권 읽고 바른말을 한다고 해서, 인권 운동에 참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서 남성성이 해체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요원한 일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실패하지 않는 남성’을 기대할 게 아니라, 왜 남성들이 실패하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을 세심히 들여다봐야 한다. 실패를 통해 남성으로서의 한계를 자각하고, 그 한계를 구조적 맥락에서 다시 사유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변화에 현실성이 부여된다. 남성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그렇다고 영원히 고정된 것도 아니다. 그렇기에 남성은 페미니즘 외부에 머무를 수 없고, 그 내부에 안주할 수도 없다. 불완전함을 전제로 꾸준히 배우고 함께하는 일, 그 긴장 속에 머물러 동료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 이 시점의 남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

###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평화·창조질서의 보전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5월 공동기도

사랑의 하나님, 어머니처럼 세상을 품고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연결된 다양한 관계와 공동체들을 축복하소서. 치유하는 공동체들이 이 땅에 더 많이 생기고 자라나게 하소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일구게 하소서. 아멘

### 6월 공동기도

성령의 바람이여, 갈라진 세상 위에 불어오소서. 전쟁과 폭력, 차별과 탐욕의 언어를 잠재우시고, 화해의 숨결로 세상을 덮으소서. 우리가 평화의 일꾼들로 살아가며 모든 생명이 안전한 세상을 꿈꾸게 하소서. 아멘

- 2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
- 4 **Y 이슈**  
이사·위원 연구모임
- 6 **현장 속으로**  
냉감패드 품질 비교 분석
- 8 **평화 인터뷰**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 10 **미술로 읽는 성경**  
요셉의 삶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예표
- 12 **미디어 모니터링**  
성차별적 미디어 소비 구조에 대한 시민 인터뷰
- 14 **서울Y 소식**  
2026 3·4월 뉴스  
2026 5·6월 행사 안내  
2026 5·6월 캘린더
- 20 **회원증모운동**
- 22 **네팔Y에서 온 편지**
- 24 **후원 소식**
- 28 **알림터**
- 30 **서울YWCA 긴급 성명서**
- 31 **2026 시민견기축제**
- 32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성**  
신의경, 독립운동가·YWCA 이사

『서울YWCA』 2026년 5·6월호 통권 제642호 창간일 1966년 3월 1일 등록번호 다-1554호 발행일 2026년 5월 1일  
 발행인 조연신 편집인 최 봄 편집위원장 황성연 편집부위원장 임지은 편집위원 이재숙 조희수 최정우 최혜란 홍성숙 편집 강민아 성지희 김수아  
 발행처 (사)서울YWCA 주소 04538 서울 중구 명동11길 20 전화 02-3705-6000 전송 02-3705-6020 홈페이지 www.seoulywca.or.kr

## 이사·위원 연구모임

2026 서울YWCA 이사·위원 연구모임이 3월 26일 대강당에서 열렸다.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의 사회’를 주제로 이사·위원·실무자 약 100명이 함께했다.



인사말씀하는 조연신 회장



GOOD IMPACT 사업을 설명하는 최한나 부회장

서울Y는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 아래, 앞으로 3년간 전개할 ‘GOOD Impact(굿 임팩트)’ 사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비전사업 ‘굿임팩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으로 시작, 주제강의와 조별 토론으로 이어졌다.

사업 소개는 최한나 부회장(이사·지도자양성위원장 겸임)이 맡았다. 굿 임팩트의 굿(GOOD) 안에는 ‘좋은’이라는 뜻을 넘어 네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Gender Justice(성평등 정의), One Earth(하나의 지구), Our Care(사회적 돌봄), Dreaming Peace(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다. 대표 프로젝트로 전개될 G-Talk(젠더·그린·톡), W-Leadership Lab(더블유-리더십랩), Action for G.O.O.D(액션포굿) 등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장윤재 목사의 특강 후에는 조별 토론이 이어졌다. ‘누구와 연대할 것인가’, ‘누구를 환대하고 포용할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두고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발표를 통해 공유한 여러 제안을 바탕으로, 서울Y는 굿임팩트 비전사업을 충실하고 효과 있게 전개하며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의 사회’를 이끌어 갈 것을 다짐했다. ♪



##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의 사회

장윤재 서울Y 고문·이화여대 신학대학원장



오늘 강연은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의 사회’라는 주제를 성경적·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금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갈등의 기저에 있는 혐오와 차별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생각해보자. 인류의 역사는 감염병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페스트, 흑사병, 아시안 콜레라 등으로 온 인류는 팬데믹을 여러 차례 겪어왔다. 질병을 앓고 나면 항체가 생겨 면역체계가 발달하게 된다. 그러나 면역계가 잘못 작동하면 오히려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이 생긴다. 우리의 행동 면역체계도 오작동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바로 회피와 혐오가 그것이다. 처음에는 외부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회피나 혐오가 과잉 상태가 되면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고 중국에는 나 자신까지 상처받게 만든다. 인지적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혹은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동증을 선호하는 뇌가 정보를 필터링하고 프레임화하면서 인간은 부분적이고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환대가 어떻게 가능할까? 책 「공정한 환대(레티 M. 러셀)」에서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사는 세계에서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환영”을 이해할 때 진정한 의미의 환대가 가능하다. 레티 M. 러셀은 하나님께서 ‘유쾌한 차이들로 가득 찬 세상을 창조 하셨다’고 말한다.

교파와 교회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신앙 운동, 에큐메니컬(ecumenical)이 바로 ‘연대로 만드는 환대와 포용’이다. 그 핵심은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속의 일치’다. 종종 에큐메니컬을 에반젤리컬(evangelical, 복음주의)과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에큐메니컬이 곧 에반젤리컬이다. 오히려 에큐메니컬은 근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기독교를 분열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회피

하게 만드는 근본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에큐메니컬은 ‘연대하는 용기’이기도 하다. 우리의 전통 춤 ‘강강수월래’는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원이 커진다. 이것이 ‘연대·환대·포용’이며, 우리가 취야 할 하나님의 춤이다.



특히 로드니 스타크가 쓴 「기독교의 발흥」을 성경 옆에 두고 읽어볼 것을 권한다. 사회학자이자 비교종교학자인 스타크는 로마제국의 한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예수 메시아 운동’이 서구 문명의 지배적인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에 주목했다. 서기 250년경인 그 당시도,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 시대였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자를 도맡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것을 그 성공의 비결로 꼽았다.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요한 13:34)에서 주목할 것은 서로 사랑하라가 아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다’다. 당시 신화 속 신들과 달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먼저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한 세상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저 구원받은 우리가 환대와 포용을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요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신앙적 소명’이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드리신 마지막 기도를 기억하자. “이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요한 17:21)

## 냉감패드 품질 비교 분석

# 접촉냉감·쾌적성 제품별 차이 있어 소비자 오인 부르는 광고 표시, 명확한 기준 필요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되면서 더위를 피하고 수면의 질을 높이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며 냉감패드가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서울Y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냉감패드 11개 제품에 대해 주요 품질과 성능을 시험·평가했다.

### 기능성

#### 접촉냉감·쾌적성 제품별 차이 보여

피부에 닿았을 때 시원함(접촉냉감)은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열이 빠르게 통과하는 정도(열통과정도),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흡수성), 공기의 흐름(공기투과도) 등 쾌적성은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는데, 열통과정도는 1개 제품\*\*, 흡수성은 5개 제품\*\*\*, 공기투과도는 1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 \*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루나앤슬립(냉감패드)
- \*\*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 \*\*\* 인터네스트(샤인포르페),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숙면연구소(아이스폴), 포레(냉감패드), 루나앤슬립(냉감패드)
- \*\*\*\*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

### 색상·형태 변화 / 내구성

#### 일부 제품, 밴드 연결부 강도 개선 필요

세탁, 땀, 마찰, 물 등에 의한 원단의 색상변화, 세탁 후 형태변형과 손상 정도, 보풀과 울퉁임 등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다. 다만 일부 제품\*은 매트리스 고정을 위한 고무밴드와 패드 연결부위의 봉합강도가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 이 중 인터네스트(샤인 포르페), 까사미아(아이스냉감), 포레(냉감패드), 루나앤슬립(냉감패드), 슬립앤코지(냉감패드)는 봉합밴드 품질 개선 계획을 회신함

### 안전성

#### 전 제품 안전성 기준 적합

냉감패드는 유아 포함 가족 구성원이 함께 사용하는 제품이므로 유아용 섬유제품 안전기준을 적용해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노닐페놀 등 안전성 기준에 적합했다.

### 온라인 광고

#### 접촉냉감 수치, 시험 조건 달라 제품별 직접 비교 어려워

일부 제품은 접촉냉감 수치가 광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업체마다 시험 대상과 조건이 상이한 데다, 일부 업체는 시험 조건이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심부체온 감소', '-20℃ 온도차'라는 즉각적이고 확실한 냉감 효과를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는 소비자가 냉감 성능을 확대·오인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 업체에 표시 개선·시정을 요청했고, 업체 측은 해당 표현을 수정·삭제했다.



### 표시·제품 특성

#### 일부 누락·오기된 표시정보 개선 필요

11개 제품 중 '박홍근홈패션(알래스카)' 제품만 표시 정보를 모두 충족했으며, 나머지 제품은 제조연월 누락, 혼용을 오기, 세탁기호 오류\* 등이 발견됐다. 또한 두께, 무게, 밀도, 크기 등 제품의 특성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밀도는 '아망떼(시베리아)'만 직물, 이 외 10개 제품이 편물로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두께는 '퓨어슬립(NEW쿨쿨아이스)'이 가장 얇고(2.91mm), '아망떼(시베리아)'가 가장 두꺼웠다(12.18mm). 무게는 '아망떼(시베리아)'가 가장 가벼웠으며(1,041g), '박홍근홈패션(알래스카)'이 가장 무거웠다(2,052g).

- \* 슬립앤슬립(아이스넷), 인터네스트(샤인포르페), 까사미아(아이스냉감), 숙면연구소(아이스폴), 포레(냉감패드), 루나앤슬립(냉감패드), 슬립앤코지(냉감패드)는 세탁기호 표시 개선을 회신함

제품 구매·사용 시 꼭 확인하세요!



접촉냉감 수치는 시험 환경, 온도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제품 비교 시 접촉냉감 수치 뿐만 아니라 시험 기준과 조건이 동일 한지 반드시 확인하고 비교해야 한다.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공기를 순환시키는 냉방 기기와 병행 사용하면 냉방 온도를 낮추지 않아도 시원함을 유지할 수 있고,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정리 김진아 생명운동팀 활동가

### 냉감패드 품질 비교 종합결과표

브랜드	제품명	기능성					내구성	표시 및 제품특징	
		접촉 냉감	광고 수치 <sup>1)</sup>	흡수성	열통과 정도	공기 투과도		봉합 강도	품질 표시 <sup>2)</sup>
슬립앤슬립	아이스넷	★★	0.336	★	★★	★★	○	×	139,000
인터네스트	샤인포르페	★★	-	★★★★	★★	★★	△	×	88,222
까사미아	아이스냉감	★★	-	★★	★★	★★	△	×	88,200
박홍근홈패션	알래스카	★★	-	★★	★★	★	○	○	75,150
퓨어슬립	NEW 쿨쿨아이스	★★★★	0.411	★★★★	★★★★	★★★★	△	×	74,900
아망떼	시베리아	★★	0.420	★	★	★	○	×	49,900
숙면연구소	아이스폴	★★	0.621	★★★★	★★	★★	△	×	69,000
파르페	글레이셔	★★	0.360	★★	★★	★★	○	×	47,500
포레	포레 냉감패드	★★	-	★★★★	★★	★★	△	×	88,000 <sup>4)</sup>
루나앤슬립	루나앤슬립 냉감패드	★★★★	0.207	★★★★	★★	★★	△	×	56,910 <sup>5)</sup>
슬립앤코지	슬립앤코지 냉감패드	★★	0.362	★★	★★	★★	△	×	44,900 <sup>6)</sup>

※ 기호표시 : ★★★ 우수, ★★ 양호, ★ 보통 / ○ 이상없음 또는 적합, △ 기준 미만, X 부적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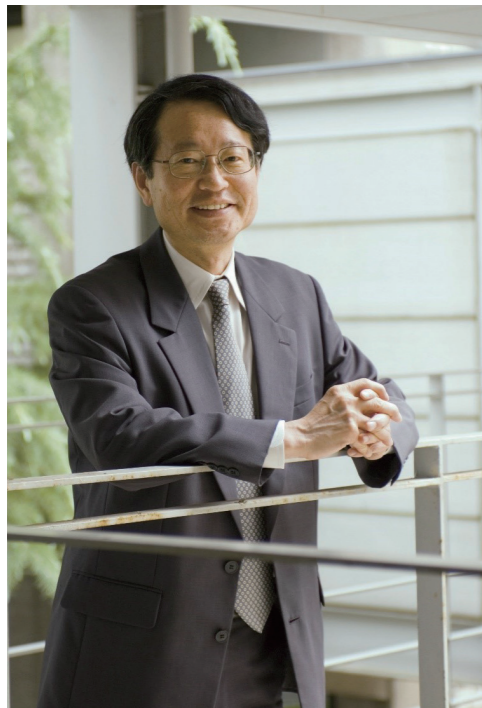
- 1) 접촉냉감(Qmax) 광고 수치, 루나앤슬립 온도차 10℃ 기준, 나머지 업체는 온도차 20℃ 기준
- 2) 품질표시 : 섬유의 조성(혼용율), 제조자명(수입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수입연월), 치수, 취급상 주의사항, 표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세탁기호
- 3) 가격 : 평균 구입가격(2025년 7월 기준)
- 4) 냉감패드 2장 + 냉감베개커버 4장 세트
- 5) 냉감패드 2장 + 냉감베개커버 1장 세트
- 6) 냉감패드 2장 + 냉감베개커버 2장 세트

# 재일한인을 세계적 이주와 공존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

“재일한인의 역사는 일본 사회 안에서 형성된 갈등과 차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재일한인역사자료관은 재일코리안 100년의 역사를 전시·수집·보존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되어, 올해로 개관 21주년을 맞았다. 민단(재일본대한민국민단)과 재외동포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이성시 관장이 자료관을 이끌고 있다. 재일한인 역사와 디아스포라 경험, 여성과 기독교가 어떻게 평화에 기여했는지 그의 생각을 들어봤다.



**재일한인은 어떤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거에는 오사카나 도쿄 등지에 재일한인의 집주 지역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체되었습니다. 오늘날 재일한인을 하나의 실제적 공동체로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일본 사회 안에서 겪어 온 역사적 갈등과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며 형성된, 가시성과 통일성이 약한 상상적 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재일한인의 삶을 ‘디아스포라’로 이해할 때, 핵심적으로 봐야 할 경험은 무엇일까요.**

재일한인의 형성은 1905년 이후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그에 따른 사회 변동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으로의 이주는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었으며, 이후 일본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겪은 차별과 빈곤 역시 중요한 맥락입니다. 특히 관동대지진(1923) 당시의 조선인 학살은 재일한인 디아스포라의 비극성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일한인의 역사를 처음 접하는 이들이 가장 새롭게 느끼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일본에서 오랜 기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일한인들이 지속적으로 조국과의 연결을 의식해 왔다는 점일 것입니다. ‘언젠가는 돌아간다’는 인식은 1970년대까지 강하게 유지되었고, 오늘날에도 국적 선택을 둘러싼 고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와 비교해도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재일한인 공동체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해 왔을까요.**

재일한인의 일상적 삶을 지탱해 온 주체는 여성이었습니다. 생계유지뿐 아니라 계 조직, 자녀 교육, 이웃 일본 사회와의 교류 등에서 여성들의 역할은 매우 컸습니다. 자료관이 소장한 전기와 회고록에는 이러한 여성들의 생활 경험이 다수 기록되어 있으며, 이는 재일한인의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재일한인 사회에 기독교가 기여한 부분이 있을까요.**

‘화해의 복음’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와 사키시의 ‘만남의 집’ 사례에서 보듯, 재일 기독교인들은 차별의 현장에서 신앙을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해 왔습니다. 취업 차별 재판 지원이나 지문 날인 거부 운동 등에서도 기독교인들의 참여는 재일한인 사회 변혁의 중요한 동력이었습니다.

**재일한인의 역사와 삶은, ‘평화’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재일한인의 경험은 추상적인 평화 담론이 아니라, 일본 사회 내부의 차별과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매우 구체적인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만 공동체를 규정해 온 피해자 의식은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만 머무를 경우, 갈등을 넘어서는 평화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민사회와 청년 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재일한인의 100년 경험은 세계화 속에서 사람·물자·자본의 이동을 겪어온 선구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재일한인을 일본 사회의 소수자로만 바라보는 시선을 넘어, 오늘날의 세계적 이주와 공존의 문제 속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지금의 시민사회와 청년 세대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 진행·정리 이도솔 평화운동팀 활동가

\* 본 원고는 평화운동팀이 진행한 비대면 인터뷰를 바탕으로 축약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 요셉의 삶에 비춰진 그리스도의 예표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후마니타스아카데미 원장

성경 인물 중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과 가장 비슷한 행로를 거친 사람은 요셉이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요셉의 일생을 그리스도와 비교하는 차원에서 괄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적어 이해를 더하고자 한다.

### 예수 그리스도 vs 요셉

야곱은 두 부인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두 여종 빌하와 실바를 통해 12남 1녀를 낳았다. 야곱은 자신의 첫사랑이자 가장 사랑한 여인 라헬의 첫아들, 즉 노년에 얻은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난 후 모든 자녀 중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예수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뿐 아니라 꿈으로 그들의 미래를 예견하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해(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는 예수) 결국은 20년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넘겼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은 30년에 예수를 팔아넘김) 그 이후 요셉은 애굽에서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으나 그의 거짓 고소로 감옥에 갇히게 된다. (유대인들은 죄 없는 예수를 거짓 고소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함)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가 되어 바로를 대행하는 권세를 행사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여 만왕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요셉은 7년 풍년 동안 장차 올 7년 기근을 대비하게 함

으로써 자신의 온 가족뿐 아니라 애굽 온 백성과 주변국을 살린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온 인류를 살리심) 요셉은 형제들과의 재회에서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 45: 5)”라고 말하며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인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 23:34) 야곱과 모든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들여 가족

안토니오 델 카스티요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리는 요셉」, 1655-1660. 캔버스에 유채, 109x145cm,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도미술관



완성의 회복을 보인 요셉은 애굽인과 주변 나라 국민에게 그들의 생명을 살린 존귀한 자가 된다. (장차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

### 스페인 화가, 안토니오 델 카스티요 이 사베드라

요셉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은 형들에 의해 중으로 팔려가는 장면과, 그 반전인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총리가 된 요셉이 마침내 자신을 드러내고 상봉하는 장면이다.

스페인의 바로크 시대 시인이자 화가인 안토니오 델 카스티요 이 사베드라(Antonio del Castillo y Saavedra, : 1616-1668)가 그린 「그의 형제들에 의해 팔리는 요셉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기 위해 다시 구덩이에서 끄집어내고 있는 장면이다.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던 요셉은 형들이 세겜을 떠나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도단으로 갔으나 형들은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어 죽이려는 계락을 세운다. 유다는 낙타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팔려 가는 이스마엘 사람들(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고 제안해 은 20냥에 요셉을 넘긴다. 작품은 바로크 시대 회화의 특징인 자연주의적 표현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시킨다. 인물들이 오른쪽에서 왼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구성되어 르네상스시대 작품들보다 역동적 특징을 보인다. 풍부한 색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면의 인물들은 옷과 피부에 하이라이트를 주어 뒤에 있는 인물들과 크기뿐 아니라 명암으로 차이를 주어 깊이감을 더하고 있다.

### 독일 화가, 페터 폰 코르넬리우스

독일의 화가인 페터 폰 코르넬리우스(Peter von Cornelius, 1783-1867)의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다」는, 템페라로 덧칠한 프레스코화로 로마 바르톨디 저택에 그렸던 8부작 프레스코 벽화 중 하나

이다. 애굽 왕궁에서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온 형제들에게 마침내 자신을 드러낸다. 왼쪽 흰색 하의를 입은 요셉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사랑하는 어린 동생 베냐민을 끌어안고 기쁨의 상봉을 하고 있다. 요셉의 뒤편 왼쪽 끝에는 바로가 의자에 앉아 있다. 형들 중 넷은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나머지는 그 뒤에 서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는 중이지만 과거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행동 때문에 안절부절못하고 있다. 형제 중 한 명은 요셉의 손에 입 맞추고 예를 표시하고 있으나 형들의 눈빛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드러나 있다. 코르넬리우스는 형제의 재회라는 극적 장면에 형들의 태도와 심리를 눈빛과 몸의 움직임으로 잘 드러냈다.

요셉의 생애는 고난을 통해 이뤄지는 구원, 배신을 넘어서는 사랑, 모든 것을 회복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

페터 폰 코르넬리우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다」, 1816-1817. 템페라로 덧칠한 프레스코화, 236x290cm. 독일 베를린 국립박물관



## 성차별적 미디어 소비 구조에 대한 시민 인터뷰 일상 속 경험에서 구조를 읽다

서울Y는 2014년부터 미디어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방송, 광고, 온라인 콘텐츠 등 다양한 매체를 대상으로 성별 고정관념과 불균형한 재현 양상을 점검하며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모색해왔다. 이 연장선에서 서울Y는 시민이 경험하는 미디어 소비 환경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고자 3월 5일부터 19일까지 「성차별적 미디어 소비 구조에 대한 시민 인터뷰」를 진행했다.



‘왜 우리는 끄지 못할까?’ 성차별적인 내용을 보면서 인지하고도 시청을 중단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숏폼 콘텐츠 중심의 환경에서는 짧은 시간 안에 문제를 판단하기 어렵고, 이는 비판적 인식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개인의 취향이나 선택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디어 소비 경험을 살펴보고자 이번 인터뷰를 기획했다.

1차 인터뷰에서는 참여자(총 9명)가 일상 속에서 접했던 미디어 사례를 개별적으로 떠올리고, 그 과정에서 느꼈던 감정이나 문제의식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각자가 경험한 미디어 소비의 양상과 인식의 지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이어 2차에서는 집단 인터뷰(FGI) 방식으로 참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디어 소비의 흐름을 함께 정리하는 ‘소비 매커니즘 지도 그리기’와 토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이 공통의 패턴을 가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구조적 맥락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과 표현 방식이 반복

‘성차별적 미디어 소비 구조’란 특정 콘텐츠의 문제가 아닌, 다양한 플랫폼에서 유사한 표현 방식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환경 전반을 의미한다. 추천 알고리즘, 화제성 중심 확산, 숏폼 기반 소비 방식 등은 특정 유형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접하게 만들며,

그 과정에서 성별에 대한 제한적인 이미지가 축적될 수 있다. 연애 프로그램이나 예능 콘텐츠에서는 성별에 따라 기대하는 역할과 표현 방식이 반복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표현이 재미를 위해 사용되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하면서도, 비슷한 방식이 반복될 경우 시청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고민을 드러냈다. 한 참여자는 “여성 출연자는 반응이나 외모에 대한 평가가 강조되는 장면이 많아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참여자는 “남성과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모습은 다소 낯설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참여자들은 막연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웠던 경험을 공유했고, 인터뷰 과정은 이를 언어화하고 사회적 맥락과 연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은 제작자와 이용자 모두의 인식 변화 속에서 형성된다. 이번 시민 인터뷰는 일상적인 미디어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개인이 느꼈던 문제의식이 사회적 논의로 확장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인의 불편함’이 사회적 구조와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했다. 앞으로도 서울Y는 시민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바탕으로 성평등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

정리\_ 김예선 여성운동팀 활동가

# 12시간 후에도 탄탄한 피부 힘 진생 안티에이징

## 수려한 진생 에센스<sup>AD</sup>



진생  
에센스<sup>AD</sup>

정신여고 신입생 봉사활동 교육  
**‘소녀에게 가는 길’**



서울Y는 4월 3일 정신여고 신입생과 함께 전일제 봉사활동 교육·체험을 진행했다. 자원봉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평화·인권’ 교육을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세계 여성 인권 이슈를 함께 살펴본 뒤 토론과 발표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평화의 소녀상이 지나는 역사적·사회적 의미를 되새기며, 이를 지키고 기억하기 위한 캠페인 피켓을 직접 제작했다. 전시 성폭력이 사라지는 세상으로 가기까지의 길을 닦자는 의미로, 명동역부터 남산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까지 플로깅 활동도 펼쳤다. 이번 교육을 통해 정신여고 학생들이 일상 속에서 여성 인권의 가치를 실천하며, 모든 여성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성 리더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



**왕과 사는 남자, 영월 사람이 들려주는 영화 밖 이야기**

서울Y는 4월 15일 마루에서 특별 강연 ‘영월 사람이 들려주는 영화 밖 이야기’를 열었다. 이번 강연은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 이후 큰 관심을 받고있는 단종의 이야기를 더욱 깊고 풍성하게 풀어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영월 출신의 강사 이명필 대표(상해흥사단)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단종애사를 바탕으로, 영월에 얽힌 생생한 스토리텔링을 더해 이해를 도왔다.

특히 이 대표는 어린 나이에 남편과 부모를 잃고 홀로 남겨진 정순왕후의 삶을 조명하며 주목을 끌었다. 자주빛으로 물들인 옷감을 내다 팔며 생계를 유지해 나간 정순왕후를 돕기 위해 ‘동네 언니’들이 만든 ‘여인시장’은, 전 세계 역사상 어디에도 없는 여성의 연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강조하며 큰 울림을 주었다.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2026 희망·행복·미래 박람회**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는 4월 16일 영등포구청과 함께 영등포아트홀에서 ‘2026 희망·행복·미래 박람회’를 개최했다. 이번 박람회에는 총 25개의 기업이 참여해 1:1 채용 면접을 진행하며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채용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구직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이력서용 사진 촬영과 퍼스널 컬러 진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누리봄

**봄맞이 감자심기 체험**

누리봄은 3월 28일 충남 예산으로 감자심기 가족 체험 활동을 다녀왔다. 동작관악교육청 학생 맞춤 통합지원 프로그램으로, 누리봄 8가족, 총 19명이 참여했다. 엄마 손을 잡고 고랑 사이에 서서 씨감자를 심으며 흙을 덮는 아이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다. 수확의 기쁨을 상상하며 땀 흘린 시간은 누리봄 가족에게 협동의 즐거움과 추억을 선물했다.



봉천종합사회복지관

**남현동 복지 거점공간 조성**

봉천종합사회복지관은 복지관과의 거리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남현동 지역 주민을 위해, 더드림교회와 공간 사용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9일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복지관은 이 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중장년 1인가구와 고립 위험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규모 모임을 운영하며, 일상 속 교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 W·ink 캠페인**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는 3월 17일 노원역 교보빌딩 앞에서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했다. 시민 65명에게 1:1 맞춤형 취업 상담을 제공하고, 경력단절 예방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집단상담, 새일여성인턴제 등 센터의 주요 사업을 알리며 지역 여성과의 소통 창구를 넓혔다. 특히 잠재적 구직자를 발굴해 실질적인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경력단절 예방 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강남청소년센터

**청소년자치활동단 연합 발대식**

강남청소년센터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청소년자치활동단 1박 2일 연합 발대식 ‘스타:틴(STAR:TEEN)’을 열었다. 청소년 60명과 함께한 이번 발대식은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관계 형성과 소속감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인준식, 팀빌딩, 연합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특별히 각 자치활동단을 소개하는 미스터 제작·발표를 통해 서로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이번 발대식에서 쌓은 소속감과 유대감을 바탕으로 청소년자치활동단이 진취적인 활동을 펼쳐가기를 기대한다.



### 2026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

서울Y는 청(소)년 회원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과 이해를 높이고 회원 간 교류를 통해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자 올해도 Y-틴, 대학·청년YWCA 연합인준식을 개최합니다. 청(소)년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하고 싶은 회원은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 **일시** 5월 30일(토) 13:00-15:00
- **장소** 4층 대강당
- **내용** 여는 예배, 비전 나눔, Y-틴/대학·청년YWCA 동아리 공식 인준 임명장·위촉장·장학증서 수여, 회원 교류 이벤트
- **문의** 02-3705-6023, 6009

### 서울YWCA '북멘토링 프로젝트' 북멘토가 되어주세요

#### 북멘토링 활동은?

소년원 여성청소년 친구들과 1:1 멘토 멘티가 되어 함께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지쓰기 활동입니다

- ※ 지속적인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최소 24개월)
- ※ 도서구입비 후원으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 **문의** 02-3705-6034

### 신규 프로그램 안내

#### 노원

• **문의** 02-951-0187

과정명	교육일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규반)_통합반	5월 18일(월)-6월 9일(화) (월-금) 14:00-17:50
요양보호사 자격증취득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반)	5월 20일(수)-5월 29일(금) (월-금) 10:00-17:50

#### 영등포

• **문의** 02-858-4514

과정명	교육일정
구직자를 위한 AI 디지털 역량교육	5월 11일(월)-5월 22일(금) (월-금) 9:30-13:30 5월 29일(금)-6월 12일(금) (월-금) 14:00-18:00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양성	5월 27일(수)-7월 15일(수) (월-금) 9:30-13:30
SNS 콘텐츠 디자이너	6월 12일(금)-8월 6일(화) (월-금) 14:00-18:00
디지털 서비스 융합전문가	8월 19일(수)-10월 29일(목) (월-금) 14:00-18:00

greenfaith YWCA 서울YWCA 기독교환경운동연대

# 기후위기, 신앙이 응답하다

## A Moral Calling for Climate Action

기후위기를 신앙적 관점에서 성찰하며  
기독교 공동체와 시민사회의  
도덕적 책임 아래  
사회와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다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

**26.5.13 WED 9AM - 5PM**  
서울YWCA 대강당

[참가신청](#)



**기조강연**  
**창조세계 회복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 기후위기 시대 신앙의 책임

**배현주** 목사 세계교회협의회(WCC) 중앙위원  
기후정의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라운드테이블**  
사회: **송진수** 소장 (한국교회환경연구소)  
김보림 활동가 (청소년기후행동)  
김혜미 정책활동가 (플랜1.5)  
유미호 센터장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유에스터 활동가 (환경운동연합)  
임영신 대표 (이매진피스)

**기후위기의 과학적 이해와 실천**  
: 우리가 직면한 현실과 전환의 과제

**이정모** 관장 팽간지중과학관 관장 / 前 국립과천과학관 관장

문의: 02-3705-6065  
ysaram@seoulywca.or.kr (서울YWCA)

2026 **5** 가족과 손잡고 걷는 달

월	화	수	목	금	토
				<b>1</b> 노동절	<b>2</b> · 강남 청소년운영위원회 (23일) 10:00 · 쌤크머니 정기모임 15:00
<b>4</b>	<b>5</b> 어린이날	<b>6</b>	<b>7</b> 위원회 재정부 11:00	<b>8</b>	<b>9</b> · 비혼커뮤니티 정기모임 10:00 · 온새미로 정기모임 11:00
<b>11</b> · 역대이사모임 11:00	<b>12</b> 이사회 10:00	<b>13</b> 한국 기독교 기후행동 컨퍼런스 9:00	<b>14</b>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b>15</b> 위원회 강남Y 10:30	<b>16</b> 시민걷기축제 8:00  위원회 국제협력팀 12:30 회원활동팀 12:30
<b>18</b> 위원회 봉천Y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평생체육팀 18:00	<b>19</b> 위원회 영등포Y 10:3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b>20</b> 위원회 누리봄Y 11:00 회원활동팀 11:00 · 지구소비수다방 독서모임 10:00	<b>21</b>	<b>22</b>	<b>23</b>
<b>25</b> 대체휴일	<b>26</b>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b>27</b>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 소리모아 정기모임 18:30	<b>28</b> · 신입위원교육 9:30	<b>29</b>	<b>30</b> · Y-틴, 대학 · 청년YWCA 연합인준식 13:00

2026 **6** 부채 주고 받는 달

월	화	수	목	금	토
<b>1</b> · 명예위원모임 11:00	<b>2</b> 위원회 재정부 11:00	<b>3</b> 2026 지방선거	<b>4</b>	<b>5</b>	<b>6</b> 현충일
<b>8</b> · 역대이사모임 11:00	<b>9</b> 이사회 10:00	<b>10</b>	<b>11</b> 위원회 여성참여팀 10:30	<b>12</b>	<b>13</b> 위원회 국제협력팀 10:30 · 비혼커뮤니티 정기모임 10:00
<b>15</b>	<b>16</b> 위원회 영등포Y 10:30 노원Y 11:00 소비자환경팀 11:00 청소년팀 11:00 홍보출판팀 11:00	<b>17</b> 위원회 회원활동팀 11:00	<b>18</b>	<b>19</b> 위원회 강남Y 10:30	<b>20</b> · 평화아카데미 정기모임 10:00 · 울력 정기모임 11:00 · 쌤크머니 정기모임 15:00
<b>22</b> 위원회 봉천Y 11:00 여성능력개발팀 11:00 평생체육팀 18:00	<b>23</b>	<b>24</b> 위원회 시설운영사업팀 11:00 · 소리모아 정기모임 18:30	<b>25</b>	<b>26</b>	<b>27</b>
<b>29</b>	<b>30</b> 위원회 인사 11:00 임원 1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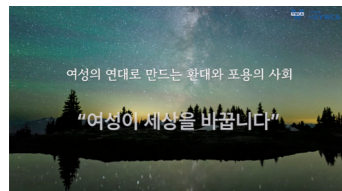
# 당신이 세상을 바꿉니다!

## 서울YWCA 회원이 되어주세요

서울YWCA는 '여성이 세상을 바꿉니다'라는 비전 아래 'GOOD Impact' 사업을 전개합니다. 함께 변화를 만들어갈 회원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4월 15일(수) - 6월 24일(수)



회원증모 영상 보기



### 입금 계좌

농협 317-2021-0706-6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 회원안내

평생회원	1,000,000원
정기회원(월CMS)	매월 10,000원 부터
일반회원(연회비)	30,000원
단체·기업회원	금액 자율

\* 서울Y의 회원이 되시면, 일상 속 작은 환경 실천을 담은 Y장바구니를 드립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문의 02-3705-6008

2026년  
서울YWCA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문

생명의 숨결이신 하나님,  
온 우주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세상을 세밀하게 돌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여성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세상을 바꾸는 길 위에 서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살림의 마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쟁과 파괴의 질서 속에서도 우리가 돌봄과 나눔, 평화의 가치를 지키는 생명살림의 시민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시대마다 사람들을 부르시는 주님,  
서울YWCA의 길 위에 새롭고 다양한 사람들을 불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서울YWCA의 회원이 되어 서로 배우고 연대하며 이 땅의 변화를 이루는 길동무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의 참여가 또 다른 희망을 낳고 작은 헌신들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구합니다.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  
우리가 숫자나 성과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운동을 꿈꾸게 하소서. 서울YWCA가 여성들의 연대 속에서 돌봄과 생명의 가치를 세상에 전하는 희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서로를 일으키고 돌보는 사람들, 차별과 혐오 가운데서 환대와 포용으로 말하고 실천하는 공동체가 될 것을 믿습니다. 서울YWCA가 정의, 평화의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구합니다.

채송희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해외다문화선교처

세상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1일  
기도 챌린지

2026년 서울YWCA 회원증모를 위한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71일을 채워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모여 세상을 밝히고 환대와 포용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입니다

드라우파티 로카야 네팔YWCA 사무총장·상임이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 14:27)

1993년에 설립된 네팔YWCA는, 1995년 카트만두 지역  
행정청에 공식 등록되어, 네팔 정부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었습니다. 같은 해, 한국에서 열린 YWCA세계  
대회에서 네팔Y는 세계YWCA 가입 단체로 승인받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날은 저희에게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네팔Y는 연대를 더욱  
굳건히 하고 평화의 정신을 깊이 새기며 회원들에게  
새로운 자신감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습니다.

## 드라우파티 로카야(68세)는...

네팔 극서부 오지에 위치한 바이타디 지역의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바이타디는 여성과 아이들 삶이  
여전히 매우 힘든 곳이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네팔과 인도의 경찰과 군인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아홉 살에  
결혼했다. 선교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로카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발견한다. 처음에는  
부모가 매우 반대했지만, 이후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모도 믿음을 갖게 되었다. 로카야는 교육학  
학사와 MBA를 취득했으며, 기혼이고 장성한 아들들이 있다. 어린 시절부터 여성과 아동이 겪는 고난을 직접  
목격하며 사회복지 활동에 헌신하게 되었다. 네팔연합선교회(United Mission to Nepal)에서 코디네이터로 근무하면서, 소외된 지역사회에  
달기 위한 독립 NGO의 필요성을 느끼고, 1996년부터 네팔 마힐라 비스와시 상(Nepal Mahila Bishwasi Sangh, 네팔YWCA) 사무총장으로  
봉사해 오고 있다.



설립 이후, 한국Y는 네팔Y 청년회원들을 한국 각지와  
지역사회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역량강화교육에 너그럽게  
초대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우리의 조직을 강화  
하고 젊은 여성 리더를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참여한 회원들은 이후 네팔Y의  
활동적인 리더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네팔Y는 전국 각지에서 200명 이상의 회원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11명의 실무자가 다양한 지역사회와  
중앙 사무소에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  
니다. 저희는 평화를 이루는 자로서 종교, 가족, 지역  
사회,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운동하며, 다양한 집단  
간의 평화, 이해,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습  
니다. 청년들의 관심사, 능력, 역량에 맞는 기회를 제공해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네팔Y는 모든 프로  
그램과 활동에 있어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전인적 접근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인과  
지역사회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웰빙을 키우고  
있습니다.

네팔은 아름다운 나라이지만, 2015년 큰 지진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한국의 YWCA는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 지원 덕분에 네팔Y는  
재난 피해를 입은 많은 가정과 지역사회에 구호와 희망,  
평화를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연대는 삶을 재건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팔Y는 여성인권 옹호 활동의 일환으로, 월경 위생  
관리에 관한 종교간·세대간 패널 토론을 정기적으로 개최  
하고 있습니다. 힌두교, 이슬람교, 불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 월경에 대한 각자의 시각을 나눕  
니다. 이러한 대화는 평화, 조화,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다양한 사회 속에서 화합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네팔Y에 지속적인 지원과 기회를 제공해 주심에 진심  
으로 감사드립니다. Y 진행·정리\_평화운동팀



## 평화란 편안함을 만들고 퍼뜨리는 과정 안우그라하 카르키

EmpowHER 프로그램을 통해 NMBS(네팔YWCA)에  
활발히 참여해 왔으며, 이 활동은 저에게 매우 큰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NMBS의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자신감, 자존감, 그리고 나 자신의 강점과 역량에 대해  
보다 깊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젠더 문제, 청소년  
역량 강화,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시각도 넓히고, 네트워킹의  
기회 또한 확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EmpowHER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활동가  
(Community Mobilizer)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을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프로그램을 진행  
하며, 젠더에 관한 인식 제고 활동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평화란 편안함을 만들고 퍼뜨리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거나 이해받기 위해 싸우지  
않아도 되는 과정입니다. 화가 날 때 친절을 선택하고,  
오해가 커질 때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감정을 쌓아  
두기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관계 속의  
따뜻함, 혼란 속의 고요함 그리고 서로의 다름에도 불구  
하고 사람들을 이어주는 부드러운 힘으로 나타납니다.

## 안우그라하 카르키(20세)는

네팔 극서부 지역 출신으로 현재  
카트만두 거주 중이다. 네팔Y 활동가로  
일하며 사회복지학과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다.



#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 2026년 3월

## 특별 후원

- 재정위원회 기금                    재정위원회
- 이사위원연구모임 기념품비      최한나
- 이사위원연구모임                이경연 이복희 임혜원  
   전영지 정수경 조연신
- 비지정후원                        안동권씨화천군파종중

## 재능 기부

- 최혜란 (홍보출판팀 위원)
- 2026년 3-4월 회보 '미술로 읽는 성경' 칼럼 기고

## 일반 후원

고려옥 고선혜 구영숙 권혜진 기영숙 김미자 김선자  
김소희 김숙희 김용관 김윤희 김인복 김현경 김형  
민혜경 박위자 박정희 박제희 박진선 박혜리 배은경  
서혜영 석성욱 송순옥 양수경 오준호 우주훈 우훈희  
유광주 육순연 윤혜선 이애진 이유리 이유림 이운선  
이은숙 이행자 이홍자 임중현 장민경 장수자 정석용  
정은숙 조연신 조종남 지복임 채재호 최혜란 하태진  
한정신 주식회사 아키엘로건축사사무소

## 북펜토링 후원

구영숙 김민아 김상희 김선자 김성연 김정숙 김지영  
김진숙 김한나 김혜경 남은희 박나영 박미소 박소현  
박용천 박진선 박채원 배은경 송태언 우영숙 이연배  
이운선 이재림 이정희 이푸른하 이현미 이희정 임재연  
정모아 조민형 조연신 최동수 최 봄 최정우 최한나  
최혜영 한혜영 월요카페 창진

## 월 CMS 후원

감윤우 감윤익 강경록 강경아 강경희 강금미 강동우  
강문숙 강민아 강민지 강선경 강성길 강수미 강시현  
강신봉 강영숙 강영임 강윤정 강일훈 강주현 강창석  
강하자 강혜진 강효미 강희경 경규연 계속화 고경혜  
고선자 고선혜 고선환 고성희 고은경 고은비 고은화  
고재옥 고희애 공명주 공민호 공민희 광민정 광지영  
구다은 구미영 구연미 구지영 권경자 권규상 권기웅  
권내영 권범찬 권성준 권순정 권순철 권예현 권우경  
권은희 권정연 권지혜 권태진 권현준 권형하 권혜진  
김경배 김경삼 김경선 김경원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관옥 김광희 김규진 김금자 김기연 김나영 김남미  
김다임 김도근 김동은 김동형 김동화 김라엘 김말녀  
김명수 김명희 김문휘 김미경 김미라 김미정 김미희  
김민선 김민성 김민숙 김민영 김민정 김민지 김배옥  
김병수 김병호 김보라 김보명 김봉근 김봉희 김상권

김석대 김선덕 김선미 김선아 김선영 김선자 김선화  
김성민 김성민 김성준 김성혜 김성희 김세진 김소연  
김소희 김수언 김수연 김수현 김순경 김순남 김순자  
김순해 김시은 김시은 김양선 김에스더 김연경 김연순  
김연희 김영숙 김영심 김영옥 김영혜 김예은 김예은  
김예지 김예지 김옥민 김용숙 김용임 김우인 김원경  
김유경 김유미 김유진 김윤경 김윤나 김윤전 김윤정  
김운종 김운지 김운지 김윤희 김은경 김은민 김은애  
김은애 김은혜 김익동 김자희 김재숙 김재신 김재영  
김재운 김재진 김재현 김정남 김정대 김정래 김정숙  
김정숙 김정순 김정은 김정연 김정완 김정자 김정환  
김종숙 김준희 김지나 김지민 김지선 김지수 김지연  
김지연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희 김진숙 김진숙  
김진향 김진호 김창섭 김채린 김철규 김철민 김철주  
김철준 김충헌 김태숙 김태연 김태준 김태한 김통범  
김하영 김하은 김한규 김해정 김향점 김현경 김현경  
김현숙 김현숙 김현영 김현우 김현일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현주 김형모 김형순 김형순  
김형원 김형태 김혜규 김혜성 김혜양 김혜진 김화숙  
김효숙 김희열 김희정 김희정 김희정 김희준 김희준  
김희진 나미정 남궁정 남궁진 남궁혜정 남연정 남윤경  
남은희 남형주 남희숙 노남례 노병균 노연순 노인화  
노현주 노혜환 동지현 류경아 류다경 류미현 류종현  
류 혁 마신웨 마채은 마초희 명정신 문경혜 문다영  
문미경 문선영 문신환 문응식 문자영 문종숙 문현숙  
문형규 문형진 문혜경 민선기 민수홍 민여진 민지홍  
민혜경 민혜경 박강규 박경미 박경옥 박경호 박경희  
박경희 박경희 박난영 박노영 박대근 박덕규 박도원  
박명윤 박문성 박미경 박미소 박미영 박미용 박민선  
박민호 박병주 박상수 박상영 박서호 박선미 박소윤  
박소현 박소현 박송아 박순예 박시윤 박신자 박양신  
박영미 박용진 박운용 박윤경 박윤솔 박윤애 박은영  
박은정 박은정 박은지 박은혜 박인선 박자현 박정숙  
박정우 박정원 박정희 박종화 박종희 박주원 박지연  
박진 박진용 박진향 박진화 박찬익 박채원 박춘화  
박태경 박태희 박현선 박현숙 박혜리 박혜수 박혜숙  
박혜자 박혜진 박휴영 박희봉 방운옥 방운우 배광순

배민선 배상현 배수남 배영우 배은경 배은주 배은진  
배정미 배종우 배진영 배호성 백광옥 백명숙 백선옥  
백성희 백옥선 백운순 백은선 백은엽 백정금 백향덕  
백향란 백향은 변영순 변은수 서경희 서락원 서명수  
서미화 서민경 서빛나 서숙경 서옥덕 서원석 서은경  
서정연 서지영 서지영 서혜원 서현옥 서혜승 서혜원  
석상화 석성욱 성경란 성대영 성덕화 성연석 성영환  
성운수 성지윤 성지윤 성지희 성진원 손근희 손소영  
송경진 송길례 송상경 송세실 송세은 송옥의 송운주  
송은아 송재임 송종우 송창은 송태언 송혜승 신경아  
신동선 신민자 신상용 신연식 신용자 신종인 신지숙  
신진실 신찬용 신창미 신총섭 신현경 신현미 신화옥  
심경호 심창섭 안성포 안성훈 안승계 안영운 안영호  
안윤희 안정국 안정희 안준태 안진희 안진희 안태진  
안희란 양다현 양봉규 양세진 양수정 양영화 양종숙  
양진화 양현옥 양혜진 엄수길 엄현진 여명진 엄용희  
염은애 오경신 오경아 오미영 오성아 오소연 오영아  
오은주 오재준 오점희 오지영 오충민 오해동 오혜영  
온기석 왕정애 용현중 우수경 우승현 우재하 원경애  
원연정 원유철 위정선 유남석 유남실 유덕호 유동미  
유미나 유미영 유병순 유성희 유 숙 유순희 유승연  
유승효 유예나 유예목 유원균 유은경 유은희 유재미  
유재현 유정순 유정한 유주빈 유진아 유현숙 육순연  
윤경례 윤경숙 윤경진 윤광미 윤문노 윤방현 윤복례  
윤상은 윤선영 윤선희 윤성섭 윤소영 윤소영 윤순민  
윤윤희 윤장범 윤재숙 윤재양 윤재혁 윤정향 윤지영  
윤지완 윤 혁 윤형석 윤혜섭 윤혜진 윤효석 윤희숙  
윤희정 이가영 이가영 이건우 이건우 이건학 이경근  
이경노 이경아 이경애 이경연 이경옥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경희 이광희 이교신 이규택 이금순 이금재  
이금희 이기쁨 이기화 이남연 이남진 이덕순 이돈행  
이동숙 이동현 이명순 이명우 이명자 이명혜 이민석  
이민정 이범재 이병희 이복현 이복희 이봉주 이봉희  
이상길 이상명 이상욱 이상윤 이상해 이선미 이선아  
이선영 이선화 이선희 이선희 이성우 이성원 이수범  
이수빈 이수연 이수연 이수윤 이수진 이숙용 이순영  
이순옥 이순우 이순천 이슬기 이승곤 이승국 이승연

이승윤 이승진 이승한 이아름 이아영 이애경 이애신  
 이연수 이영대 이영미 이영미 이영미 이영석 이영숙  
 이영숙 이영우 이영자 이영준 이영진 이영화 이영희  
 이옥경 이용균 이용호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빈  
 이운선 이운정 이은경 이은경 이은빈 이은숙 이은아  
 이은영 이은이 이은자 이은자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정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주 이은지  
 이은혜 이은희 이의곤 이인석 이인성 이임수 이재건  
 이재경 이재길 이재옥 이재옥 이재정 이재준 이재천  
 이재혁 이정구 이정석 이정석 이정숙 이정숙 이정은  
 이정인 이정한 이정현 이정훈 이정희 이종규 이종석  
 이종욱 이주연 이주형 이주형 이준혜 이증자 이지범  
 이지선 이지숙 이지아 이지연 이지연 이지영 이지는  
 이진규 이진선 이진아 이창희 이채진 이태림 이푸른하  
 이한기 이한나 이항재 이 행 이행남 이행자 이현국  
 이현순 이현미 이현미 이현아 이현옥 이혜미 이혜원  
 이혜정 이혜주 이혜준 이혜진 이호섭 이호정 이희전  
 이희찬 임등자 임미령 임미영 임병일 임성준 임승훈  
 임양수 임옥영 임은유 임완철 임재연 임재영 임정현  
 임정화 임정훈 임준호 임중현 임지연 임지은 임지현  
 임지현 임춘화 임현주 임현희 장경미 장경세 장경화  
 장금환 장길례 장명자 장민조 장선희 장성호 장세린  
 장수용 장영옥 장영은 장예선 장용익 장주현 장지현  
 장철승 장현주 장화선 전경희 전덕기 전민구 전병규  
 전병우 전상숙 전소영 전영삼 전영지 전오연 전운숙  
 전인옥 전재수 전하라 전행욱 전현숙 정경문 정경미  
 정경원 정대필 정동신 정모아 정문옥 정미선 정상미  
 정서진 정선덕 정선주 정선희 정세호 정소희 정승원  
 정승원 정승혜 정애경 정영백 정영룡 정영희 정예슬  
 정원화 정유리 정유진 정윤정 정윤희 정윤희 정은주  
 정재현 정재훈 정정애 정종화 정종화 정준선 정지연

정지영 정지향 정진우 정진희 정진자 정한열 정해운  
 정현서 정현승 정현아 정현주 정혜명 정혜수 정혜승  
 조계연 조규성 조규영 조규영 조규원 조규원 조길수  
 조대신 조명희 조미선 조민형 조성미 조성미 조성진  
 조성채 조성환 조성환 조세환 조연신 조오영 조용선  
 조원식 조윤신 조재상 조점순 조정현 조정현 조정훈  
 조정희 조중희 조진영 조한솔 조한준 조형운 조혜성  
 조혜진 조홍신 조희수 주동일 주명애 주형로 지경표  
 지미화 진가인 진영선 진재승 차경희 차미연 차하나  
 채재호 채지은 최광기 최기은 최명희 최문정 최민영  
 최 봄 최서래 최성현 최순자 최순태 최승민 최승아  
 최승환 최영실 최영주 최운영 최유정 최윤서 최윤주  
 최윤희 최윤희 최은성 최은주 최인숙 최정현 최정호  
 최종대 최준명 최지영 최지영 최지은 최지현 최진숙  
 최현경 최혜영 최혜원 탁순희 탁정미 하령자 하정미  
 하진희 하태성 하태진 한가원 한경희 한다정 한명희  
 한미미 한민희 한성우 한승연 한승우 한승희 한옥연  
 한완영 한윤경 한이수 한인선 한 정 한정신 한정운  
 한정원 한정화 한지현 한진숙 허미란 허선영 허영록  
 허영숙 허혜정 현은순 홍경화 홍서희 홍선미 홍성숙  
 홍성옥 홍수연 홍영숙 홍운서 홍은미 홍정혜 홍주실  
 홍현표 황명숙 황보영 황선미 황순분 황어진 황용하  
 황윤희 황지희 황현순 황홍숙  
 Vanessa Shaffer (주)건축사사무소빅 (주)미래공간인디맨  
 (주)지인에프앤씨 그린에이전시 김진경디자인스튜디오  
 노무법인 한승 세무회계사무소지성 솔샘건축  
 스튜디오GAGA 씨에라여성의원 아뜰리에 더 라엘  
 아름답희한의원 양재2동어린이집 조명팩토리  
 주식회사 아이통교육 주식회사 아키웍스 주식회사 제이글로리  
 주식회사콤마코리아 진한의원 파티인테이블 향기나무

**후원 계좌**

농협 317-2021-0710-91

(예금주 : 사단법인서울와이더블유씨에이)

문의 02-3705-6008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PERT  
 300만 개의 스피클로 더 강력한 성분 도달  
**콜라겐 특수관리 이상의 탄력 효과**

레티놀 레티젝션™ 세럼



**IOPE**

### 회원 소식

**김재영** 평생체육위원회 위원  
딸 이서운 씨  
4월 4일(토) 오후 3시 30분  
라시파시어터(서초구 양재동)에서 결혼

**김철민** 봉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4월 9일(목) 부친상

서울Y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는 방법

서울  
아이

아직도 친구가 아니신가요?

인스타그램 @seoulywca\_korea [팔로우 신청](#)

유튜브 서울YWCA 검색 [구독 버튼](#)

카카오톡 Q 검색란에 서울YWCA [채널 추가](#)

### 스포츠센터 강습 안내

#### 발레핏

발레핏은 발레바를 이용한 발레와 필라테스 동작을 바탕으로 골반과 허리, 어깨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바디라인을 되찾아주는 운동입니다

- 강습 안내 주 1회 (총 3타임 운영) : 70,000원  
금 17:30-18:20  
금 18:30-19:20  
금 19:30-20:20

#### 소도구 필라테스

소도구(짐볼, 매트, 폼롤러, 링)를 이용하여 파워하우스(복부, 등, 허리, 힙) 부분의 탄력을 기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

- 강습 안내 주 2회 : 77,000원  
화·목 7:00-7:50
- 문의 02-3705-6030

### 서울YWCA회관 대관 안내

서울Y는 강연, 세미나, 토론회, 설명회, 주주총회,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쾌적한 대관 시설을 운영합니다.

#### 대강당

**좌석** 의자 200석, 의자·테이블 100석 (원형테이블은 개별 렌탈)  
**기자재** 인터넷선, 마이크(유선·무선), 스크린(고정·이동형), 피아노, 현수막설치봉  
**사용료** 2시간(기본) 40만원(VAT별도)부터  
**문의** 02-3705-6093



대한민국

하나가

모든 모임에

썩니다



### 「하나모임통장」

- 파킹금리 최고 연 2.5%**  
(3백만원 금고영역 한도, 세전)
- 충무변경 가능**
- 1/N 정산 가능**

### 하나모임통장 출시 EVENT

2026.04.10(금) ~ 2026.06.30(화)



하나모임통장 가입하고 행운을!  
「100% 즉시 당첨」

#### 참여 혜택

백화점 상품권, 치킨 기프티콘, 커피 기프티콘  
중 1개 랜덤제공

#### 참여 방법

하나모임통장 신규 가입 후  
이벤트 페이지 내 Touch 버튼 누르기  
· [랜덤 1개 제공] 100% 당첨 및 즉시제공 (하나원큐>마이페이지>쿠폰함)  
· 하나모임통장 신규 가입한 경우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통장 전환 시 불가)  
· 해당 이벤트는 모임원 초대 여부 상관없이, 하나모임통장 신규 보유 시 참여 가능합니다  
· 참여 즉시 당첨 쿠폰이 제공되며, 거래량이 많아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 딱! 맞는 선물물!  
「테마별 백만원 상당 선물」 (추첨을 통해 중첨)

#### 참여 혜택

스포츠(고급 스포츠워치), 여행(명품 캐리어), 가족(의식상품권), 커플/부부(호텔 상품권)

#### 참여 방법

하나모임통장 신규 가입하고 모임원 초대하여,  
모임에 맞는 선물물 선택 후 응모하기 버튼 누르기  
· 추첨만 응모 가능  
· 본인(총무) 포함 모임원이 총 2명 이상인 경우 참여 가능  
· 해당 이벤트는 추첨을 통해 경품이 제공됩니다  
· 7/24(금) 당첨안내 예정



※하나원큐는 하나은행의 대표 스마트뱅킹 브랜드입니다. ※본 이벤트는 하나은행의 사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되거나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단, 기 조전 중추 손실 제외) [하나모임통장] 상품유형 :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가입대상 : 실명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1인 최대 10 계좌) ※금리 : 최저 연 0.10% ~ 최고 연 2.50% (2026.04.10 기준, 세전) ※최고금리 : 기본금리 0.10% + 우대금리 2.40% (모임통장서비스를 통해 금고영역에 자금을 보관(잔액 이동)한 경우, 금고영역 잔액에 한하여 매일의 최종 잔액 중 3백만원 이하의 금고영역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 제공) ※수수료 우대 : 이 상품을 보유한 경우 무제한 면제 (예금 통장을 통한 거래시 - 당행 자동화기기 사용 연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문명망(ARS)을 통한 타행 이체 수수료 - 납부자자동이체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CD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 타행잔액 설치된 자동화기기 -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이자기계산방법 : 이자기계산기간 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이자기계산기간 : 예금일(또는 인가일)부터 인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 ※이자기금(원)가일 : 매일 셋째주 금요일의 다음 영업일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원금 및 이자기계산기간의 경우 : 계좌에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이 등록될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본 상품 및 이벤트에 대한 문의사항은 하나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를 참고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2026-06111호(2026.04.15~2027.04.14) ※하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26-경고-04247(2026.04.08~2026.06.30) / CC브랜드260407-0091

## 전쟁을 멈추고, 평화로 나아가자

— 중동 전쟁 중단과 평화 촉구 —

서울YWCA는 중동 전쟁으로 민간인의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미국과 이란은 휴전 논의를 시작했으나 이는 시작일 뿐이다. 우리는 일시적 중단을 넘어, 완전한 종전과 평화를 강력히 요구한다.

### 서울YWCA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요구한다

#### 명분 없는 전쟁을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지 말라

정의는 힘의 우위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책임과 원칙을 묻는 기준이다. 어떠한 국가도 스스로를 정의의 주체로 내세워 타국의 주권과 질서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 전쟁은 언제나 '명분'으로 포장되지만, 그 명분은 결국 책임지지 않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어로 반복되어 왔다. 우리는 묻는다.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정의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 무력으로 평화를 만들 수 없음을 기억하라

폭력과 보복은 갈등을 해결하기는커녕 더 깊은 분열과 적대를 낳는다. 국제적 갈등은 군사적 대응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어떠한 국가도 무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모든 전쟁 당사국에도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국제사회는 제국주의적 논리와 배타적 사고를 넘어 포용과 연대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강압에 의한 일치가 아니라, 다양성 속의 일치(unity in diversity)를 이루는 것이 전 세계가 지향해야 할 평화의 길이다.

#### 생명을 앗아가는 전쟁을 지금 당장 멈추라!

민간인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될 수 없다. 단 한 사람의 죽음도 '불가피한 피해'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국제인도법은 전쟁 상황에서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분하고,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위를 금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예방 조치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의 삶의 터전이 공격받고 있는 현실에 우리는 깊은 분노를 느낀다. 이는 인간 존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생명 보호라는 최소한의 원칙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전쟁은 인간의 생명뿐 아니라 생태계를 파괴하며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한다. 전쟁은 인간과 자연을 동시에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이다.

“여호와와 압제를 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를 행하시며...”(사편 103:6)

서울YWCA는 하나님께서 억눌린 이들의 편에 서서 공의를 행하심을 믿는 신앙공동체로서,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 신앙은 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아니라, 고통 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생명을 살리고 정의와 평화를 이루라는 부르심이다.

서울YWCA는 폭력과 침묵이 아닌 생명과 책임의 길을 선택한다. 그리고 국내외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평화를 향한 실천을 끝까지 이어갈 것이다.

2026년 4월 15일  
(사)서울YWCA

여성의 연대로 만드는  
포용과 포용의 사회!

2026  
서울YWCA

# 시민권 촉구대회

다들 뭐해? 같이 걸자!

신청하기  
[QR코드]

2026·5·16(토)  
오전 8시 - 11시 30분  
남산공원(백범광장·북측순환로)

- 프로그램** 8:00- 8:30 **마중길** 식전 행사, 개회식  
8:30-10:40 **동행길** 남산순환로 걷기  
10:40-11:30 **나눔길** 체험부스, 행운권 추첨, 폐회식
- 참가비** 성인 1만원/어린이·청소년 5천원(기부 손수건 제공)
- 복장** 상의 흰색, 하의 청색 또는 검정색
- 접수** 서울Y 본부·5개 지부로 사전신청, 온라인 신청 후 참가비 입금  
\*참가비 입금 후 등록 완료

- 함께 만드는 축제**
- 환경을 위해 손수건(하늘색) 재사용으로 제로웨이스트운동에 동참해주세요(손수건 재사용 시에도 참가비는 동일합니다)
  - (유료)주차장이 혼잡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 노약자는 행사 진행자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 운동화, 개인용 돗자리를 준비해주세요
  - 비가 와도 열립니다. 우산, 우비 준비해주세요



## 신의경

독립운동가·YWCA 이사  
1898-1988

선생은 1898년 한성부(현 서울)에서 출생했다.  
정신여학교와 이화여전, 일본 동북제국대학에서 수학했다.  
정신여학교에 교사로 있으면서, 개화기 여성 지도자로서  
대한민국애국부인회에 가입해 경기도지부장을 맡아 독립운동을 펼쳤다.  
독립운동 자금 모집에 힘써 임시정부로 송금한 것을 빌미로  
1919년 대구형무소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 이듬해인 1922년 본회 창립에 큰 역할을 담당했고  
해방 후 YWCA 재건을 위해, 특히 명동의 회관을 얻는 일에 공헌했다.  
이화여전 교수로, 장로회 경기노회 여전도회연합회 회장으로 일했으며  
1946년에는 Y 대표 자격으로,  
대한민국과도정부 입법관선 대의원으로 활동했다.  
이후 피어선성경학교, 정신여중·고, 서울여대에서 교육 활동을 이어갔다.  
  
대한민국 정부는 1963년 선생에게 대통령표창을 수여했고,  
1990년에는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선생의 큰이모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다.